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 9. 7.(월) / 총 4매 (본문 2, 붙임2)	
자료 제공	• 수산물수급정보센터 수급분석전망팀 - 강효녕 팀장 (051-797-4525)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수부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와 수산물 수급 협력 논의

- 고등어 포함 수산물 수급 환경 변화 공동 대응·연어 등 주요 품목 정보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

우리나라 수입 고등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공급 여건이 어획 쿼터 조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9월 3일(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NSC)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수산부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국내 수급 · 소비 동향을 공유하고, 고등어 · 연어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 중 하나로,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는 올해 1월 한국사무소를 일본사무소에서 분리해 독립 해외사무소로 격상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7월 실시한 노르웨이 현지조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사무소의 부산 방문과 연계해 진행됐다.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국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부원장이 참석했으며, 노르웨이 측에서는 모니카 타우센(Monika Thowsen)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공관차석과 잉에보르그 요르달(Ingebjørg Hjortdahl)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 마켓 디렉터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국내 수급 · 소비 동향과 시장 변화를 공유하고, 지난 7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수산물의 생산 · 가공 · 수출 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 조정이 국내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수급 정보의 상시 교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고등어·연어 등 주요 품목의 정보 교류를 비롯해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과제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연구 경험,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의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교류와 공동 세미나·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의회가 한국과 노르웨이 간 수산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강효녕 팀장(051-797-4525) <young@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의 사진



9월3일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부·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정책협의회' 참석자 단체사진



좌측부터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잉에보르그 요르달 한국 마켓 디렉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부원장, 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국장,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모니카 토크센 공관차석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의 잉에보르그 요르달 한국 마켓 디렉터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9월3일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부·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정책협의회' 참석자 단체사진